

축구

8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獨 2부 이재성, 시즌 마수걸이 골



이재성

독일 분데스리가 2(2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재성이 1골·1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재성은 11일(한국시간) 독일 라인란트팔트주 베른카스텔-비탈리히의 잘름

탈슈타디온에서 열린 독일축구협회 포칼 1라운드(64강) FSV 잘름로어(6부 리그)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그는 경기 초반부터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재성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9분 데이비드 아탕가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9분 뒤에는 아탕가의 득점을 도우면서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1골·1도움을 올려 팀의 주축 미드필더다운 활약을 펼친 이재성은 후반 23분 핀 포르타와 교체됐다.

2019~2020 분데스리가2에서 2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하는 등 코칭스태프의 든든한 신뢰를 얻고 있는 이재성은 이번 활약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분데스리가2에서는 1부1패에 그치고 있는 홀슈타인 길은 이날 6-0의 완승을 거둬 이번 시즌 팀의 첫 번째 승리를 신고하며 대회 32강에 진출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성용 명단 제외...뉴캐슬은 0-1 패



기성용

기성용(30·뉴캐슬)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뉴캐슬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아스널과

2019~2020 EPL 홈 개막전을 가졌다. 기성용은 교체선수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뉴캐슬은 비 시즌 동안 기성용을 신뢰했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재계약 협상에 실패, 중국 슈퍼리그 다롄 이팡으로 떠났다. 베니테스 감독을 대신해서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다. 브루스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대로 기성용은 개막전 출전 선수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뉴캐슬은 후반 13분 아스널의 피에르 에메리크 오바메양에게 골을 내주면서 0-1로 패했다. 경기 종료 후 브루스 감독은 "기성용의 결장은 부상이 아니다. 전술적인 선택에 따른 명단 제외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기성용이 만만치 않은 주전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지욱 기자

K리그1 치열한 중·하위권 순위경쟁



선두 경쟁 버금가는 중하위권 싸움이다. 후반기 레이스를 보내고 있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가 상위 스플릿으로 향하려는 5~9위 팀들 간의 다툼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2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싸움에서 앞선 5위 상주 상무 선수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쑹쑹한 5~9위...상위스플릿행 대혼전

5위 상주, 4위 강원과 승점 4점차 6위 대구, 9위 포항과 승점 5점차 두터운 중위권 그야말로 점입가경 경남-인천-제주, '강등 탈출' 열투

스플릿 라운드 돌입까지 팀 당 8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의 순위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리그 선두를 놓고 1위 울산 현대(승점 55)와 2위 전북 현대(승점 53)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FC 서울(승점 46)은 최근 페이스가 다소 떨어졌지만 안정적으로 3위를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위 스플릿(6위 이내) 진출을 다투는 5위~9위까지 5팀이 쑹쑹하게 붙어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이 쉽지 않은 하위권에서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페이스를 꼭 끌어올린 상주 상무

상주(승점 35)는 현재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2연승 포함 5경기에서 3승1무1패를 거두면서 7월초 8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대거 끌어올렸다. 4위 강원FC(승점 39)와의 승점 차를 많이 줄였다. 군 팀이라는 특성상 제대 인원이 나오는 9월 이전에 최대한 승점을 챙기겠다는 상주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현재 팀의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이 제대하면 리그 막판 주축할 수 있어 상주는 계속 6위권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상주의 행보가 다른 팀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두터운 중위권

9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29)와 상위 스플릿 마지막 선인인 6위 대구FC(승점 34)와의 승점 차는 5점이다. 한 경기로 뒤집어질 수는 없지만 남은 8경기를 통해 충분히 만회 가능한 수치다. 7위 수원 삼성(승점 32), 8위 성남FC(승점 30)도 상위 스플릿에 도전하고 있다. 수원은 7월에 4승1패를 거두며 순위를 꼭 끌어올렸지만 이달 들어 2연패로 주춤해 어렵게 잡았던 6위를 다시 내주고 말았다.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아 상위권 도약을 노려볼만 하다. 시즌 내내 꾸준하게 중위권에 위치한 성남은 공격에서의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은

괜찮은 편이다.

●더 치열한 강등권

강등권 경쟁은 더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위 경남FC(승점 19), 11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18), 12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17)로 매우 밀착돼 있다.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25라운드에서 경남과 인천이 1승씩을 챙기자 홈에서 패한 제주가 최하위로 밀려났다. 다음 주말로 예정된 26라운드 결과에 따라 최하위 팀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강등권 경쟁은 스플릿 라운드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다.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세 팀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FC서울이 외국인 공격수 페시치의 복귀를 앞세워 다시 선두 추격을 준비하고 있다. 부상으로 7월 한 달을 재활로 보냈던 페시치는 11일 강원FC전을 통해 복귀전을 마쳤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돌아온 골잡이' 페시치...서울, 선두 추격 힘 받을까

40일 만에 복귀...강원전 후반 투입 선두와 승점 9점차, 간격 좁힐지 관심 9득점 페시치, 득점왕 경쟁도 가세

11일 강원FC와 K리그1 25라운드를 앞둔 FC서울 최용석 감독은 페시치(27)의 복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최 감독은 "아직 60% 정도의 몸 상태다. 교체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전여부는 반반이었지만, 결국 페시치는 후반 29분 투입되면서 40여 일만에 복귀했다.

올 시즌 페시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공격 옵션이었다. 세르비아리그 득점왕 출신답게 수준 높은 골 감각으로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골 가뭄으로 힘들었던 서울은 페시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또 전북 현대, 울

산 현대와 함께 선두 경쟁을 펼치며 명예회복을 자신했다.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페시치는 6월 30일 울산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발을 밟혀 골절상을 당했다. 페시치의 공백은 너무 컸다. 그가 빠져 있는 동안 팀 상승세도 꺾였다. 페시치가 필멸 날았던 18라운드까지 선두 전북과 승점 동점(38점)을 이루며 경쟁했지만 페시치가 빠지자 2승1무3패로 부진했다. 특히 전북과 울산 등 라이벌과의 대결에서 패한 게 뼈아팠다. 박주영과 박동진이 최전방에서 버텼지만, 그래도 페시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었다. 주전 공격수들의 체력이 고갈된 데다 뒤를 받치던 조영욱까지 부상당해 최 감독의 근심은 컸다.

이제 에이스가 돌아왔다. 실전 감각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관건은 페시

치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다. 아직 상위권 팀끼리 맞대결을 펼치는 스플릿라운드가 남아 있어 페시치가 컨디션 회복해준다면 막판 선두 추격의 기회도 열려 있다. 서울은 선두 울산에 9점 뒤진 3위(승점 40)다. 페시치의 복귀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최 감독은 "한방에 해결해줄 수 있도록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득점왕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반기에만 9골을 몰아치며 득점 선두였던 페시치는 부상으로 빠져 있는 동안 순위표에서도 밀려났다. 호주 출신 타겟수(수원 삼성)가 13골로 선두로 나섰다. 주니오와 김보경(이상 울산, 10골)도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다. 페시치의 복귀로 득점 레이스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대한축구협회 공정위 "정종선 회장 직무정지"

피해자 직간접 접촉 금지 조치도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원단체의 회장이자 연남고 감독을 맡고 있는 축

구지도자로서 해당 혐의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 징계안건으로 공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연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종선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들었다. "제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 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연남고 축구부 운영비 10억원 가량을 횡령했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정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